

대학 임시주거 거주학생들의 임시주거에 대한 태도

- 건축학과 학생들을 중심으로 -

An Attitude of Residents on College Temporary Housing - Focused on Students in Architectural Design Program -

김 덕 수* 권 준 범**
Kim, Duk-Su Kwun, Joon-Bum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factors negatively affecting college life, to investigate the perception gap between housing types, and to generate preliminary data for increasing residential satisfaction of students who live in temporary housing(e.g., dormitory or one-room). The utilized research methods included a questionnaire survey and an in-depth interview. The college students, especially from other regions, experienced more financial difficulties than others. They managed their tuition and living expense/allowance by parents supports and other sources(e.g., scholarship, arbeit, work in college, loan etc.). The reasons to choose dormitory, as temporary housing, were short distance to college and low costs. In case of one room, independent life was main reason to choose. Gender differences affected to the decision, moving away from present temporary housing. For example, male students preferred an independent life and a short commuting distance, while female students preferred an independent life and a safe life. Thus, considering the origin and gender differences of residents, dormitory planning needed to develop plans allowing independent life and to choose appropriate site for the purpose. In case of planning one room apartment, concerns for safety and landscape were more important than other factors.

키워드 : 집, 임시주거, 기숙사, 원룸, 거주성인식

Keywords : House, Temporary Housing, Domitory, One-room, Perception to Living Conditions

1.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청년들이 경험하는 어려움에 대한 분석은 취업과 결혼, 출산 및 양육, 그리고 노후대비를 포함한 다양한 시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직업 선택에 미치는 유교적 전통의 영향과 교육정도에 따른 임금의 격차와 같은 요인에 의해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청년들의 대학 진학률은 높은 편이다. 대학 졸업장은 청년들이 자신의 꿈을 펼치며 독립한 경제

주체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중요한 필요조건이 되었다. 대학에 진학하는 젊은이들은 대학이 위치한 도시로 향한다. 해당 대학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은 주거비 및 생활비 부담이 없어서 다른 지역에서 유학 온 학생들보다 상대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덜 겪는다. 또한, 친지와 친구들이 있는 익숙한 환경에서 학업을 계속하기 때문에 필요할 때는 쉽게 사회적 및 심리적 지원을 얻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 반면에 다른 지역에서 유학 온 학생들이 사회적 및 심리적 지원의 결핍과 학업에 대한 어려움이 주거비와 생활비 조달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 부닥치게 되면, 대학 생활은 바람직한 미래를 구현하기 위한 준비과정이 아니라 인생 전반에 걸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고난의 시작이 되기도 한다. 대학교육과 관련하여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목적으로 정부와 대

* Professor, Ph.D., Dept. of Architecture, Hanbat National University, Korea

** Professor, Ph.D., Dept. of Architecture, Sejong University, Korea

Corresponding Author, E-mail: joonkwun@sejong.ac.kr

이 논문은 2017년도 한밭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의 지원을 받았음.

학은 소득분위에 따라 장학금을 차등 지원하는 국가장학금이나 교내 근로 장학금 등을 확대 지급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또한, 대학들은 기숙사를 확충하여 다른 지역 출신 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가볍게 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문제의식에 의해 시작된 본 연구는 출신 지역별로 대학 생활의 어려움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을 분석하고, 주거형식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조사하며, 임시주거 선택 및 계속 거주 이유와 이주 희망 이유를 분석하여 대학생들의 임시주거 계획에서 만족도 증진을 위해 고려해야 하는 요소 탐색을 목적으로 한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의 분석의 단위는 대전에 있는 H 대학에 재학 중인 건축학과 학생들이다. 연구의 방법은 설문조사와 심층 인터뷰를 포함한다. 설문조사는 2018년 11월 1일부터 20일까지 시행했다. 회수한 총 106부의 설문지 중 응답이 부적절한 5부를 배제하고 101부의 설문지를 분석하였다. 설문응답자 중 자택 거주 학생, 기숙사 거주 학생, 그리고 원룸 거주 학생으로 세분화하여 각각 10명씩 총 30명의 학생을 심층 면접하였다.

2. 이론적 고찰

기숙사는 거주 학생들의 학업 수행과 심리적 안정을 위한 긍정적 역할을 하여야 한다. 공용공간의 배치, 2인 1실이나 1인 1실형과 같은 단위공간의 평면계획을 고려하는 물리적 환경개선을 통해 기숙사 생활에 대한 긍정적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¹⁾. 대학설립 운영규정 제4조 별표2에 따르면 기숙사는 교사시설 중 부속시설에 속해 있는 시설이다. 대학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해 교육적인 목적을 지니고 숙식을 제공하는 공동거주체계를 의미하며, 가정과 학교의 중간적인 성격으로 주거와 학습을 겸비한 공간을 말하는 많은 다양성을 포함한 건축형식이다. 또한, 거주기간이 한정된 주거형태로 대학재학 시에만 이용 가능한 교육용 주거시설의 종합이다. 대학기숙사에 관한 연구는 거주자의 심리적 관점과 관리 및 기능적 효율성과 관련된 실용적 관점으로 대별할 수 있다.

먼저 대학생들의 거주유형에 따른 심리적 상태의 연관

성에 대한 연구결과들을 발견할 수 있다. 기숙사에 거주하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의 결과를 따르면, 학교생활 스트레스는 학업, 건강, 개인, 환경적 요인의 순으로 발생한다. 따라서 경제적 요인에 의한 스트레스 발생의 정도와 그 영향은 알 수 없지만, 학교생활에서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학생은 우울이 높고 또한 우울이 높을수록 대학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다²⁾. 일반적으로 대학생들의 우울수준은 사회적 지지(가족이나 친구로 부터의 지지)와 심리적 행동특성(자기 존중감, 대인 의존행동 특성, 통제 신념)이 낮고, 스트레스가 높을 경우에 증가한다³⁾. 대학생의 스트레스 증상과 건강증진행위와의 관계를 탐색하는 연구에 따르면 비기숙사에 거주하는 대학생과 비교할 때 기숙사에 거주하는 대학생의 경우에는 우울, 불안, 정서적 분노가 건강증진행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⁴⁾.

영역성과 프라이버시가 대학교 기숙사 거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는 기숙사 거주 학생들의 단위공간에 대한 거주만족도는 영역성보다는 프라이버시에 대한 긍정적 지각에 의해 더욱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적절한 규모의 개인 공간 확보와 단위 공간 계획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⁵⁾.

다음으로 대학 기숙사와 관련된 연구문헌들은 사회변화에 따른 기숙사 기능변화와 관리의 관점에 따른 중요도의 차이에 관한 주제로 분류할 수 있다. 대학기숙사는 거주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에 따라 주거와 교육의 전통적 역할만이 아니라 문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합시설로 변화하고 있다⁶⁾. 대학기숙사 개인공간인 생활공간 중심에서

1) Kim, Mi-Hee and Oh, Ji-Young, University students' housing satisfaction of the university dormitory. Journal of the Korean Housing Association, 19(6), p.154, 2008.

2) Lee, Oi Sun, Hong, Min-Joo & Gu, Hye-Ja, The correlation between school-life stress, depression and college adjustment residing in the dormitory. Journal of the Korea Academic-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7(9), p.486, 2016.

3) Park, Ui-Su and Cho, Young-Chae, The effect of social supports, psychological behaviors, and stress on the depression symptoms of colleg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c-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8(6), p.217, 2017.

4) Lee, Sun-Mi, Relationship between stress symptoms and health promoting behaviors for university students by the type of residence. Journal of the Korea Academic-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7(9), p.455, 2016.

5) Hur, Jinseon and Yang, Sehwa, Perceptions of privacy and territoriality and residential satisfaction in dormitory rooms. Journal of the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Planning & Design, 18(8), pp.96~97, 2002.

6) Yang, Sung-Yong et. al., A study on proper ratio calculation of university dormitory. Journal of the Regional Association

학습공간과 지원공간 중심으로 생활패턴과 중요성이 바뀌어 가고 있다. 즉 다양한 유형의 학생들이 거주하고 있는 대학기숙사는 단순히 숙식을 해결하는 거주의 개념에서 벗어나 복합시설의 문화공간으로써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⁷⁾. 문화와 교육활동을 포함한 사회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계획이 필요한 이유다⁸⁾. 기숙사의 물리적 환경과 공동체 의식은 상관관계가 존재하며, 사회적 교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쾌적함, 정숙함, 그리고 기숙사 주변의 충분한 사회적 공간의 존재를 들고 있다⁹⁾. 대학기숙사의 입지와 만족도를 분석한 연구는 주요 도심과의 인접도가 대학 기숙사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거주만족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예를 들어 학습기능과 관련된 기숙사 거주만족도는 캠퍼스 경계형 기숙사가 도서관과 같은 교내시설 접근성과 외부 학원과 같은 외부시설에의 용이한 접근성에 의해 가장 높게 나타났다¹⁰⁾. 한편 지방 캠퍼스에 위치한 기숙사를 기숙사실, 복지시설, 외부공간으로 대별하여 시행한 POE 조사는 기숙사실의 면적이 기숙사 거주학생들이 인식하는 가장 큰 불만족 요인임을 밝히고 있다¹¹⁾. 대학교 기숙사에 거주하는 외국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공동시설(체육시설, 컴퓨터실 등), 관리(기숙사 규칙 등), 외적 조건(교통, 위치 등), 실의 내부 환경(면적, 가구 등), 어메니티(조도, 환기 등), 그리고 개인적 사항의 순으로 대학 기숙사 불편사항을 밝히고 있다¹²⁾. 한편 기숙사 거주학생들과 기숙사 관리자

를 대상으로 신축 대학 기숙사의 공유공간의 비율 및 면적을 조사한 연구는 이해그룹간의 상이한 필요인식의 차이를 발견하였다. 예를 들면, 학생들과 달리 관리자는 유지 및 관리의 효율성 때문에 공유공간의 중앙집중형 배치를 선호한다¹³⁾.

3. 연구방법

3.1 연구대상지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대전에 있는 H 대학으로 약 10,000여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다. 총 106명의 학생(남 48명과 여 58명; 평균나이는 22.56세)에게 배부하고 회수한 자기기입식 설문지 중 101부의 설문지를 분석의 대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응답자는 남학생 45명과 여학생 56명이었고, 남학생의 평균나이는 23.32세이고 여학생 평균나이는 22.04세이었다. 분류는 대전과 다른 지역으로 크게 나누어 그 차이를 분석하고, 거주유형에 따른 분석은 임시주거를 기숙사(Figure 1)와 원룸(Figure 2)으로 대별하여 진행하였다.

2018년 7월 30일 대학교육연구소 자료에 의하면, 2017년 4년제 대학교 기숙사 수용률은 비수도권 대학들이 수도권 대학들 보다 더 높다. H 대학이 위치한 대전의 경우에는 18.3%의 기숙사 수용률을 보이나 H 대학의 기숙사 수용률은 13.7%로 낮다(Table 1). 2017년 기준 월평균 기숙사비는 수도권 국공립대학이 31만원이고 사립대학은 37만원에 달하며, 지방 국공립 및 사립대학의 월 평균 기숙사비는 각각 21.6만원과 27.1만원으로 저렴하다. H 대학의 경우 월 기숙사비는 15.9만원으로 저렴하다(Table 2).

Table 1. 2017 Dormitory Acceptance Rate

Seoul Metropolitan		Other Regions		Daejeon	
Public	Private	Public	Private	Total	H Univ
16.9%	15.8%	25.5%	23.8%	18.3%	13.7%
16.35%		24.65%			
20.5%					

Table 2. 2017 Boarding Expenses per Month(Single-Person Room)

Seoul Metropolitan		Other Regions		Daejeon	
Public	Private	Public	Private	Total	H Univ
₩310,000	₩370,000	₩216,000	₩271,000	-	₩159,000
₩340,000		₩243,500			

uncomfortable factors in dormitory. Korea Science & Art Forum, 26, p.486, 2016.

13) An, Jin-o and Je, Hae-seong, A case study on the common space in the dormitory buildings on campus. Journal of the KIEAE, 7(4), p.95, 2007.

of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17(1), p.1, 2015.

- 7) Park, Hang-Ja et. al., A study on improvement of residential environment for indoor space of university dormitory through the evaluation of user satisfaction. Journal of the Korean Housing Association, 18(2), p.136, 2007.
- 8) Park, Hang-Ja et. al., A study on cause-and-effect analysis between the environmental factors of residential area at the university dormitory and the user satisfaction. Korean Institute of Interior Design Journal, 17(5), p.149, 2008.
- 9) Kim, Won-Pil, Effects of physical living environment on the social interaction and perceived sense of community among students in university dormitory.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Educational Facilities, 22(5), pp.2~10, 2015.
- 10) Yeom, Dae-Bong and Park, Sung-Jin, A study on the effects of locational characteristics of university dormitories on resident students' dwelling satisfaction. Journal of the Regional Association of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16(1), pp.60~63, 2014.
- 11) Song, Byung-Ha and Roh, Ji-Woong, A study on satisfaction and behavior in a residence hall. Journal of the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Planning & Design, 20(1), p.67, 2004.
- 12) Zhang, He Quan and Lee, Sung Pil, A study on finding



Figure 1. Dormitories of H University



Figure 2. Typical One-Room Building nearby H University

H 대학 인근 원룸의 규모는 대개 19.8m²-26.4m²이다. 가격은 보증금 100만원-400만원에 월세 20만원-33만원, 관리비 0.1만원-4만원 수준이다. 원룸에는 기본적으로 TV,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침대, 전자레인지, 인덕션, 책상 등이 구비되어 있다(Figure 2).

대전 출신 학생 중에는 자택 거주자가 34명(79.07%)이고, 임시주거인 기숙사와 원룸에 각각 3명과 6명, 총 9명(20.93%)이 거주하고 있다. 한편 다른 지역 출신 학생 58명 중 임시주거에 거주하는 학생들은 55명(94.83%)이다. 대전이 아닌 세종과 공주에 거주하는 학생 중 3명(5.17%)은 대전으로 통학하고 있다(Table 3). 설문응답자의 학년

Table 3. Student Characteristics and Housing Types: Origin

Origin	Sex	Average Age	Temporary Housing		House	Sum
			Dorm	One Room		
Daejeon	M	23.60	0	2	14	16
	F	22.00	3	4	20	27
	Sum	22.57	3	6	34	43
Others	M	23.03	6	21	2	29
	F	22.07	10	18	1	29
	Sum	22.55	16	39	3	58
Sum	M	23.32	6	23	16	45
	F	22.04	13	22	21	56
	Sum	22.56	19	45	37	101
			9			
			55			
			64			

Table 4. Student Characteristics and Housing Types: Grades

Grade	Daejeon		Others		Average Age	Temporary Housing		House	Sum
	M	F	M	F		Dorm	One Room		
1	5	9	5	6	20.29	9	3	13	25
2	3	6	8	8	21.56	9	7	9	25
3	5	4	9	5	23.61	1	16	6	23
4	2	4	3	5	24.07	0	9	5	14
5	1	4	4	5	25.00	0	10	4	14
Sum	16	27	29	29	22.56	19	45	37	101
	43		58			64			

별로 거주하는 주거유형의 특징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학년이 올라가면서 원룸으로 주거지를 변경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Table 4).

설문지 응답은 1(희망적이다)에서 10(부정적이다)의 척도로 측정된 미래에 대한 인식과 현재 거주하고 있는 기숙사와 원룸에 대한 인상을 묻는 질문들 외에는 “매우 그렇다”의 5에서 “매우 그렇지 않다”의 1까지 구분한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4. 연구결과

4.1 출신 지역별 대학생활 관련 인식 비교

전체적으로 대학생활 만족도는 전공(4.04), 교우관계(3.99), 대학(3.88)의 순으로 나타났다. 출신 지역으로 보면, 다른 지역 출신 학생(4.01)의 대학생활 만족도가 대전 출신 학생(3.92)보다 전반적으로 더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Table 5).

Table 5. The Degree of Satisfaction to College Life: Origin

Origin	Sex	College	Major	Friendship	Average
Daejeon	M	3.75	4.00	3.81	3.85
	F	3.85	4.04	4.07	3.99
	Average	3.80	4.02	3.94	3.92
Others	M	3.93	4.03	4.14	4.03
	F	3.97	4.07	3.93	3.99
	Average	3.95	4.05	4.04	4.01
Sum	M	3.84	4.02	3.98	3.94
	F	3.91	4.06	4.00	3.99
	Average	3.88	4.04	3.99	3.97

대학생활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에서 출신지 별로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대학생활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대전 출신 학생(3.68)보다 다른 지역 출신 학생(3.81)에게서 높게 나타났다. 부정적 인식의 정도는 대전 출신 학생들과 다른 지역 출신 학생들 간에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각

각 2.75, 2.74). 세부 항목을 살펴보면, 대전 출신과 다른 지역 출신 학생들 모두에게서 대학생활에 대한 긍정적 인식 중에서 ‘즐거움’이라는 인식(각각 3.73, 3.87)이 ‘희망적’이라는 인식(각각 3.63, 3.76)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부정적 인식 중에서는 ‘궁핍한’(각각 2.99, 3.05)이 ‘외로운’(2.50, 2.44) 생활을 하고 있다는 인식보다 많이 발견되었다. 성별에서 발견되는 차이점을 보면 대전 출신 남학생들(3.78)이 여학생들(3.57)에 비해 긍정적으로 대학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반면에 다른 지역 출신의 경우에는 여학생들(3.87)이 남학생들(3.76)에 비해 대학생활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출신 지역별 성별간의 부정적 인식을 살펴보면 대전 출신 학생들은 남학생들(2.88)이 더욱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반면에 다른 지역 학생들에게서는 여학생들(2.87)의 부정적 인식이 두드러진다(Table 6).

Table 6. The Degree of Perception to College Life: Origin

Origin	Sex	Positive Perception			Negative Perception		
		Pleasant	Hopeful	Average	Indigent	Lonely	Average
Dae-jeon	M	3.75	3.81	3.78	3.13	2.63	2.88
	F	3.70	3.44	3.57	2.85	2.37	2.61
	Ave.	3.73	3.63	3.68	2.99	2.50	2.75
Others	M	3.76	3.76	3.76	3.03	2.21	2.62
	F	3.97	3.76	3.87	3.07	2.66	2.87
	Ave.	3.87	3.76	3.81	3.05	2.44	2.74
Sum	M	3.76	3.79	3.77	3.08	2.42	2.75
	F	3.84	3.60	3.72	2.96	2.52	2.74
	Ave.	3.80	3.69	3.74	3.02	2.47	2.74

대학생활의 어려움으로, 대전 출신 및 다른 지역 출신 학생들 모두 취업(각각 3.31, 3.36)과 성적(각각 3.30, 3.43)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고 있다. 성별로 보면 대전 출신 및 다른 지역 출신 학생들 모두 남학생들은 성적(각각 3.19, 3.41)을, 여학생들은 취업(3.56, 3.55)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인식하고 있다(Table 7).

Table 7. The Type and Degree of Difficulties to College Life: Origin

Origin	Sex	FS	EM	AF	FN	AD	Average
Daejeon	M	2.94	3.06	3.19	3.06	2.88	3.03
	F	2.41	3.56	3.41	2.30	2.44	2.82
	Ave.	2.68	3.31	3.30	2.68	2.66	2.93
Others	M	2.21	3.17	3.41	2.62	2.25	2.73
	F	2.45	3.55	3.45	3.00	2.34	2.96
	Ave.	2.33	3.36	3.43	2.81	2.30	2.85
Sum	M	2.58	3.12	3.30	2.84	2.57	2.88
	F	2.43	3.56	3.43	2.65	2.39	2.89
	Ave.	2.50	3.34	3.37	2.75	2.48	2.89

Legend. FS: Friendship, EM: Employment, AF: Academic Performance, FN: Finance, AD: Adaptation

미래에 대한 인식에서 출신 지역별로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대전 출신 학생들보다 다른 지역 출신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미래를 더욱 희망적으로 인식하고 있다(각각 4.18, 4.04). 1(희망적이다)에서 10(불안하다)까지의 스케일로 측정된 결과를 성별로 비교하면, 여학생(4.03)이 남학생(4.19)에 비해 미래를 희망적으로 보고 있다. 한편 다른 지역 출신 학생들의 월평균 지출은 남녀 평균 월 62.11만원으로 대전 출신 학생들의 지출 51.18만원보다 많았다. 구체적으로 보면, 대전 출신 남학생들(48.75만원)은 가장 지출이 적었고 다른 지역 출신 남학생들(70.93만원)은 지출액이 가장 많았다(Table 8).

Table 8. The Degree of Perception to Future and Expenditure per Month: Origin

Origin	Sex	1 Hopeful - Anxious 10	Expenditure
Daejeon	M	4.13	₩487,500
	F	4.22	₩536,000
	Ave.	4.18	₩511,800
Others	M	4.24	₩709,300
	F	3.83	₩532,800
	Ave.	4.04	₩621,100
Sum	M	4.19	₩598,400
	F	4.03	₩534,400
	Ave.	4.11	₩566,400

대전 및 다른 지역 출신 학생들 모두 생활비/용돈 조달은 주로 부모님(각각 73.85%, 80.67%)과 아르바이트(각각 52.20%, 49.08%)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Table 9).

Table 9. Sources of Living Expenses & Allowance: Origin (Multiple Responses, %)

Origin	Sex	PR	AR	CE	SS	LN	Others
Daejeon	M	62.50	56.25	12.50	-	-	-
	F	85.19	48.15	-	-	-	-
	Ave.	73.85	52.20	6.25	-	-	-
Others	M	78.57	46.43	3.57	-	-	3.57
	F	82.76	51.72	10.34	-	-	-
	Ave.	80.67	49.08	6.96	-	-	1.79
Sum	M	70.54	51.34	8.04	-	-	-
	F	83.98	49.94	5.17	-	-	-
	Ave.	77.26	50.64	6.60	-	-	-

Legend. PR: Parents, AR: Arbeit, CE: College Employment, SS: Scholarship, LN: Loan

학비 조달의 주요한 수단은 부모님으로부터의 지원이지만 출신 지역별로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 대전 출신 학생들은 부모님의 지원(70.14%) 외에 장학금(16.21%)과 국가근로(15.51%)를 통해 학비를 조달하고 있다. 다른 지역 출신 학생들은 부모님의 지원(61.39%) 외에 국가근로

(34.92%)와 대출(12.25%)을 통해 학비를 조달하고 있으며 장학금(10.41%)에 의해 학비를 조달하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다. 성별에 따른 학비조달 방법의 차이를 보면,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는 출신 지역에 상관없이 남학생(대전 18.75%, 다른 지역 21.43%)의 비율이 높으나, 국가근로의 경우에는 여학생(대전 18.52%, 다른 지역 44.83%)의 비율이 높다(Table 10).

Table 10. Sources of Tuition: Origin(Multiple Responses, %)

Origin	Sex	PR	AR	CE	SS	LN	Others
Daejeon	M	62.5	18.75	12.50	25.00	12.5	0.00
	F	77.78	3.70	18.52	7.41	0.00	3.70
	Ave.	70.14	11.23	15.51	16.21	6.25	1.85
Others	M	60.71	21.43	25.00	3.57	10.71	3.57
	F	62.07	0.00	44.83	17.24	13.79	0.00
	Ave.	61.39	10.72	34.92	10.41	12.25	1.79
Sum	M	61.61	20.09	18.75	14.29	11.61	1.79
	F	69.93	1.85	31.68	12.33	6.90	1.85
	Ave.	65.77	10.97	25.21	13.31	9.25	1.82

Legend. PR: Parents, AR: Arbeit, CE: College Employment, SS: Scholarship, LN: Loan

4.2 임시주거 거주자의 거주인식 및 특성

거주만족도를 보면 기숙사(3.56) 거주보다는 원룸(3.70) 거주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임시주거인 기숙사와 원룸에서 생활하고 있는 학생들의 평균 거주 기간을 보면, 기숙사의 경우에는 평균 1.59년간 거주하고 있고, 평균 1.84회 이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원룸에 거주하는 학생들은 평균 1.77년간 거주하였고 평균 이사빈도는 2.60회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거주 행태의 차이를 보면, 기숙사와 원룸에 거주하는 여학생의 거주만족도가 남학생보다 높다(각각 3.70, 3.56). 세부적으로 보면, 기숙사에 대한 만족도는 여학생(3.78)이 높으나, 원룸에 대한 만족도는 남학생(3.78)이 높다. 반면에 기숙사에 거주하는 남학생의 경우는 여학생에 비해 거주 만족도는 낮지만(각각 3.33, 3.78), 더 오랜 기간 거주(각각 1.92년, 1.25년)하고, 이사 빈도(각각 1.67회, 2.00회)가 적은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에 원룸에 거주하는 남학생의 경우는 여학생에 비해 거주만족도가 높고(각각 3.78, 3.62), 더 오랜 기간 거주하고(각각 2.03년, 1.50년), 이사빈도가 적다(2.53회, 2.67회)(Table 11).

1(긍정적)에서 10(부정적)까지 스케일로 측정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임시주거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를 보면, 기숙사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경우 안전(3.00)하고 편안(3.25)하다는 항목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인식이 강했다. 원룸에 거

Table 11. The Degree of Satisfaction to Temporary Housing and the Characteristics of Resident's Behaviors

Type	Sex	Satisfaction	Residence Period(Year)	Moving Frequency(#)
Dorm	M	3.33	1.92	1.67
	F	3.78	1.25	2.00
	Ave.	3.56	1.59	1.84
One Room	M	3.78	2.03	2.53
	F	3.62	1.50	2.67
	Ave.	3.70	1.77	2.60
Sum	M	3.56	1.98	2.10
	F	3.70	1.38	2.34
	Ave.	3.63	1.68	2.22

주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편안(3.18)과 아늑(3.45)하다는 항목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보면, 남학생들은 기숙사가 편안(3.17)하다고 인식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나, 여학생들은 기숙사가 가장 안전(2.67)하다고 인식하였다. 반면에 원룸의 경우에는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편안(각각 3.26, 3.10)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한편 부정적인 인상을 주는 항목을 보면, 기숙사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넓지 않은 실의 크기(6.59)였고 원룸에 거주하는 학생들에게는 고급스럽지 못하다(5.09)는 것이었다. 구체적으로 성별에 따른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항목의 차이를 보면, 기숙사에 거주하는 남학생의 경우에는 실의 크기(7.17)이고 여학생의 경우에는 고급스럽지 못하다(7.11)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룸에 거주하는 남학생과 여학생의 경우에는 모두 고급스럽지 못하다(각각 4.65, 5.52)는 인상을 가장 많이 갖고 있었다(각각 6.67, 5.07)(Table 12).

Table 12. Perception to Temporary Housing, Living in the Present

Type	Sex	1 Positive - Negative 10						
		CF	CL	SF	CZ	LX	QT	SC
Dorm	M	3.17	4.50	3.33	3.50	6.00	5.50	7.17
	F	3.33	5.22	2.67	3.11	7.11	5.22	6.00
	Ave.	3.25	4.86	3.00	3.31	6.56	5.36	6.59
One Room	M	3.26	3.61	3.48	3.57	4.65	3.78	3.87
	F	3.10	3.67	4.05	3.33	5.52	5.05	4.52
	Ave.	3.18	3.64	3.77	3.45	5.09	4.42	4.20
Sum	M	3.22	4.06	3.41	3.54	5.33	4.64	5.52
	F	3.22	4.45	3.36	3.22	6.32	5.14	5.26
	Ave.	3.22	4.25	3.38	3.38	5.82	4.89	5.39

Legend. CF: Comfort, CL: Clean, SF: Safe, CZ: Cozy, LX: Luxurious, QT: Quiet, SC: Spacious

전체적으로 볼 때, 임시주거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현재의 주거유형을 선택하게 된 주요 요인은 짧은 통학거리(4.29)와 독립적인 생활(3.88)로 나타났다. 주거유형별로 차이를 보면 기숙사 선택 학생들은 통학거리(4.56)와 비용

(3.84)을, 원룸 선택 학생은 통학거리(4.02)와 독립적 생활(3.81) 욕구가 주요 선택 요인으로 나타났다. 성별 간에서는 남학생들은 독립적인 생활(4.19)에 대한 욕구가 크며 여학생들은 통학거리(4.56)가 현재의 임시주거를 선택하게 한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Table 13).

Table 13. Reason to Choose Temporary Housing, Living in the Present

Type	Sex	EP	CD	OI	SL	IL
Dorm	M	4.17	4.33	2.83	3.50	4.33
	F	3.50	4.78	2.44	3.22	3.33
	Ave.	3.84	4.56	2.64	3.36	3.83
One Room	M	3.22	3.70	2.35	3.09	4.04
	F	3.38	4.33	2.10	2.81	3.81
	Ave.	3.30	4.02	2.23	2.95	3.93
Sum	M	3.70	4.02	2.59	3.30	4.19
	F	3.44	4.56	2.27	3.02	3.57
	Ave.	3.57	4.29	2.43	3.16	3.88

Legend. EP: Expenses, CD: Commuting Distance, OI: Opportunity for Interaction, SL: Safe Living, IL: Independent Living

현 거주공간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 기숙사에 거주하는 학생들은 실의 크기(4.09)와 편의시설(3.97)을 언급했고, 원룸에 거주하는 학생들은 원룸 외부공간의 조경(3.26)과 내부마감(3.23)을 개선해야 할 부분으로 지적하고 있다. 성별로 개선 필요 부분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보면, 기숙사 거주 남학생은 편의 시설과 실의 크기(각각 4.50)를, 여학생의 경우에는 가구와 실의 크기(각각 3.67)를 가장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 인식하고 있다. 원룸에 거주하는 남학생들의 경우에는 내부마감(3.17)을, 여학생들의 경우에는 조경(3.48)을 가장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 인식하고 있다(Table 14).

Table 14. Parts Requiring Improvement to Temporary Housing, Living in the Present

Type	Sex	IR	CF	TL	FN	LT	SZ	CH	LS
Dorm	M	4.33	4.50	3.67	4.17	4.33	4.50	4.17	3.83
	F	3.44	3.44	3.22	3.67	3.11	3.67	3.22	3.11
	Ave.	3.89	3.97	3.45	3.92	3.72	4.09	3.70	3.47
One Room	M	3.17	3.00	2.48	2.87	2.78	2.70	2.87	3.04
	F	3.29	3.05	2.62	3.24	2.81	3.19	2.86	3.48
	Ave.	3.23	3.03	2.55	3.06	2.80	2.95	2.87	3.26
Sum	M	3.75	3.75	3.08	3.52	3.56	3.60	3.52	3.44
	F	3.37	3.25	2.92	3.46	2.96	3.43	3.04	3.30
	Ave.	3.56	3.50	3.00	3.49	3.26	3.52	3.28	3.37

Legend. IR: Interior, CF: Convenient Facilities, TL: Toilet, FN: Furniture, LT: Lighting, SZ: Size, CH: Cooling & Heating, LS: Landscape

한편 현재 거주하는 기숙사나 원룸에서 이사를 계획하는 경우에는 독립적 생활(3.57)과 안전한 생활(3.34) 욕구

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기숙사에서 거주하는 학생들은 독립적인 생활(4.19)과 안전한 생활(3.74)을 위해 이사 계획을 하고 있으며, 원룸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안전한 생활(2.95)과 독립적인 생활(2.95)을 위해 이사를 계획하고 있다. 성별에 의한 차이를 보면, 기숙사에 거주하는 남학생들은 독립적 생활(4.67)과 안전한 생활(4.33)을, 여학생들은 통학거리(3.71)와 독립적인 생활(3.71)을 위해 이사를 계획하고 있다. 반면에 원룸에 거주하는 남학생들의 경우는 통학거리(3.05)와 독립적인 생활(3.00)을 위해, 여학생들은 안전한 생활(3.11)과 비용(3.00) 때문에 이사를 계획하고 있다(Table 15).

Table 15. Reason to Move away from Temporary Housing, Living in the Present

Type	Sex	EP	CD	OI	SL	IL
Dorm	M	2.83	3.50	3.33	4.33	4.67
	F	3.29	3.71	2.71	3.14	3.71
	Ave.	3.06	3.61	3.02	3.74	4.19
One Room	M	2.84	3.05	2.53	2.79	3.00
	F	3.00	2.83	2.28	3.11	2.89
	Ave.	2.92	2.94	2.41	2.95	2.95
Sum	M	2.84	3.28	2.93	3.56	3.84
	F	3.15	3.27	2.50	3.13	3.30
	Ave.	2.99	3.27	2.71	3.34	3.57

Legend. EP: Expenses, CD: Commuting Distance, OI: Opportunity for Interaction, SL: Safe Living, IL: Independent Living

5. 논의

5.1 임시주거 학생들의 특성과 계획 프로그램의 방향

대전지역 출신 학생들의 약 20%, 다른 지역 출신 학생들의 약 95%가 임시주거에 거주하고 있다(Table 3). 기숙사는 신입생이 낯선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완충지대 역할,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 그리고 짧은 통학거리라는 장점을 갖고 있으나 단체생활과 기숙사 규정에 따른 통제를 벗어나 독립적인 생활을 원하는 학생들은 기숙사에서 원룸으로 이주하거나 입학하면서부터 원룸을 선택하기도 한다. 비용이나 대학과의 거리와 같은 상대적 장점에 의해 계속 거주를 희망하더라도 기숙사는 신입생이나 원 주소지가 먼 학생들에게 입사 우선권을 주기 때문에 원룸으로 이주해야만 하는 일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동은 단순한 거주지의 변경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부담의 증가와 이와 연동하는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야기한다. 원룸에 거주하는 학생들은 거주비와 생활비 지출이 기숙사나 자택에 거주하는 학생들보다 많다. 생활

비와 용돈의 조달은 주로 부모님의 지원과 아르바이트를 통해 이루어진다. 하지만 생활비, 용돈, 그리고 학비조달을 전적으로 부모님께 의존할 수 없는 학생들은 학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경제활동에 많은 시간을 소비한다. 이는 선택의 문제라기보다는 현 상황에서 생존하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선호하는 경제활동의 유형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다. 남학생은 교외에서 하는 아르바이트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은 데 비해 여학생들은 교내의 국가 근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학생들은 대학생활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취업과 성적을 인식하고 있다. 학업에 집중하기 어려운 학생들이 좋은 성적으로 받은 장학금 수혜를 통해 학비를 보조하는 기회는 점점 멀어진다. 또한, 건축 공모전 참가와 수상, 건축기사 자격증 취득, 혹은 어학공부를 위해 시간과 비용을 투자할 수 없는 상황에 부닥쳐 취업준비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기숙사나 원룸과 같은 임시주거에 거주하는 다른 지역 출신 학생들은 생활비 및 용돈 이외에 추가적인 학비조달을 위해 국가 근로나 대출에 의존하는 경우가 대전 출신 학생들보다 상대적으로 많다. 구체적으로 보면, 대전 지역 학생들은 부모님의 지원과 장학금에 그리고 다른 지역 출신 학생들은 국가근로와 대출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다 (Figure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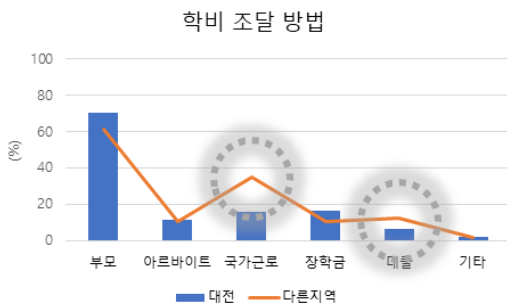


Figure 3. Ways to Pay Tuition by Origin

그러나 다른 지역 출신 학생들은 학비와 생활비 및 용돈 조달을 위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된 상황에서도 상대적으로 미래를 희망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은 역설적으로 가슴에 품고 있는 미래에 대한 긍정적 기대를 노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들을 위한 경제적 지원이 중요한 이유다. 그러나 학생들은 경제적 장점에 의해서만 임시주거를 선택하지 않는다. 사회적 및 심리적 지원 방안으로 임시주거 공간 계획이 교류를 통한 사회적 지원이 가능하게 이루어지고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심리적 지원이 가능한 건축적 배려 역시 학생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중요한 이유다.

거주유형에 대한 만족도는 성별 간에 차이가 있었다. 여학생의 경우 안전을 기숙사 생활의 장점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원룸 거주 여학생들은 원룸의 안전도가 낮다고 인식하고 있다. 기숙사에 거주하는 학생들은 안전하다. 편안하다, 아늑하다, 깨끗하다와 같은 긍정적인 인상을 받고 있으나, 거주만족도는 원룸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기숙사 거주 학생들보다 상대적으로 높다. 이러한 현상은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임대료와 단점에도 불구하고 독립적인 생활에 대한 높은 심리적 선호도에 의해 원룸을 선택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기숙사 거주 학생들은 짧은 통학거리를 가장 중요한 결정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고 다음으로는 저렴한 비용을 주요 결정 요인으로 삼고 있으나, 원룸 거주 학생들은 독립적 생활을 상대적으로 더욱 중요한 결정 요인으로 삼고 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임시주거에서 이사를 희망하는 경우를 살펴보면, 기숙사에 사는 학생들은 독립적인 생활과 안전한 생활을 그 이유로 들고 있고, 원룸 거주 학생들은 안전한 생활과 독립적인 생활에 대한 높은 욕구를 보여주고 있다. 한편 구체적으로 임시주거 유형과 거주 학생들의 성별에 따른 인식의 차이를 살펴 보면, 기숙사에 거주하는 남학생의 경우에는 교류의 기회, 안전한 생활, 그리고 독립적 생활을 위해 다른 임시주거로 이주를 희망하고 있고, 원룸에 거주하는 남학생들의 경우에는 교류의 기회에 대한 욕구가 이사 계획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Figure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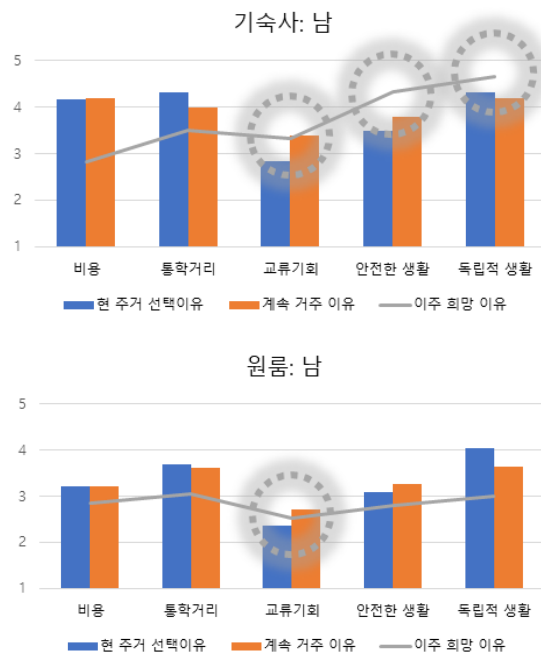


Figure 4. Perception to Temporary Housing by Male Students

기숙사에 거주하는 여학생의 경우에는 교류의 기회와 독립적 생활에 대한 욕구가 이사계획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원룸에 거주하는 여학생의 경우에는 교류의 기회와 안전한 생활에 대한 욕구가 이사계획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igure 5).

따라서 임시주거 계획에서 고려해야 하는 중요사항은 비용과 통학거리와 같은 경제적 및 기능적 조건만이 아니라, 다른 학생들과의 교류가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있도록 하는 건축적 배려를 통해 커뮤니티에 소속감을 느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사회적 지원을 고려해야 하고, 안전하고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한 배치 및 평면계획을 하여 심리적 지원을 제공하는 배려 역시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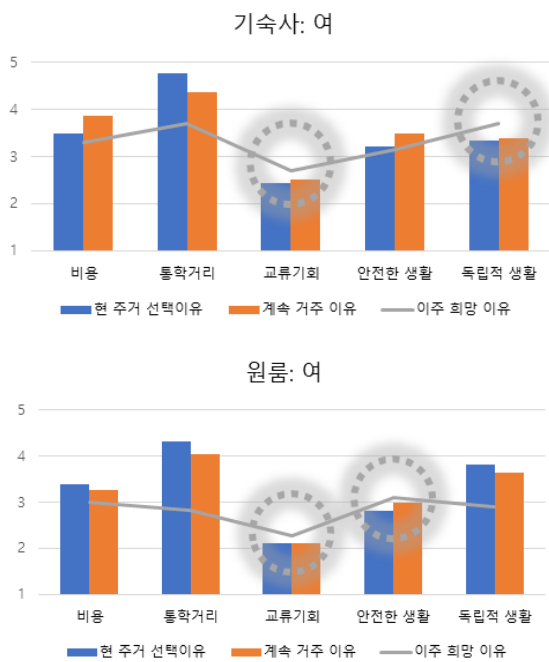


Figure 5. Perception to Temporary Housing by Female Students

5.2 임시주거의 물리적 개선을 위한 고려사항

현재 거주하는 임시주거의 긍정적 혹은 부정적 특성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유형별로 차이점이 있었다. 구체적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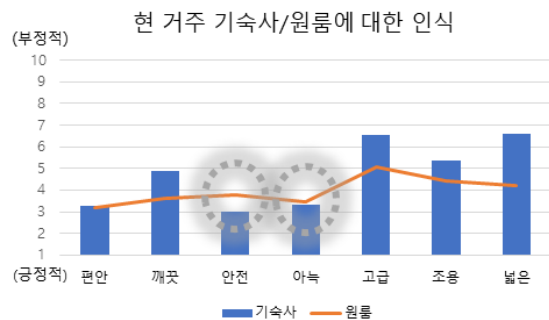


Figure 6. Perception to Temporary Housing by Type

로 유형별 인식의 차이를 살펴보면, 원룸을 기숙사보다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원룸보다 더 긍정적으로 인식되는 기숙사의 속성은 ‘안전하다’와 ‘아늑하다’는 것이었다(Figure 6).

임시주거 중에서 기숙사가 원룸보다 개선요구 사항이 많았다. 기숙사에서 개선이 요구되는 항목들은 실의 크기와 편의시설의 순서로 언급되고 있다. 한편 원룸의 경우에는 개선이 필요한 항목으로 조경과 내부마감의 수준 순서로 언급되고 있다. 원룸과 비교했을 때 가장 개선이 필요한 기숙사 관련 항목은 실의 크기와 편의시설이었다(Figure 7). 성별 간 차이를 보면 기숙사에서는 남학생들에게서 개선을 요구하는 항목이 많이 발견되었고, 원룸에서는 여학생들에게서 개선요구 항목이 많이 발견되었다. 기숙사의 경우 남학생은 실의 크기와 편의시설을, 그리고 여학생들의 경우에는 실의 크기와 가구를 개선이 가장 필요한 부분으로 인식하고 있다. 성별의 차이를 고려할 때 가장 개선이 필요한 기숙사 관련 항목은 조명과 편의시설로 나타났다(Figure 8). 한편 원룸의 경우 남학생들은 내부마감과 조경을, 여학생들은 조경과 내부마감을 개선이 가장 필요한 부분으로 인식하고 있다. 성별의 차이를 고려할 때 가장 개선이 필요한 원룸 관련 항목은 조경과 내부마감의 수준이었다(Figure 9).

임시주거의 물리적 개선은 원룸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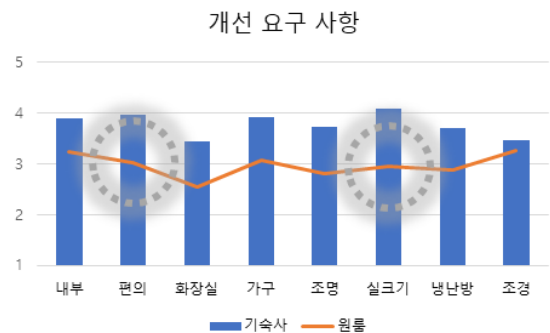


Figure 7. Parts Requiring Improvement to Temporary Housing by Typ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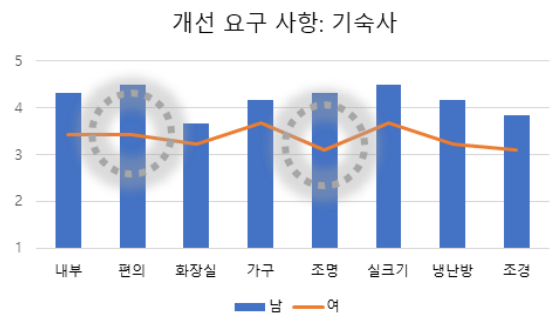


Figure 8. Parts Requiring Improvement to Temporary Housing: Dor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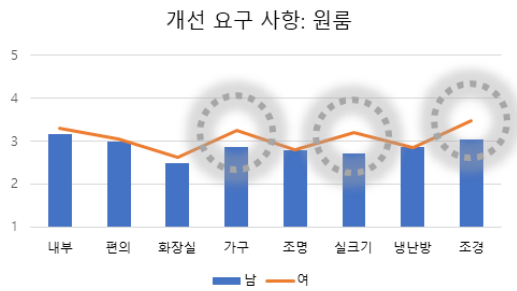


Figure 9. Parts Requiring Improvement to Temporary Housing: One Room

거주만족도를 높게 하는 항목과 기숙사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물리적 개선요구 순서와 정도를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성별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는 개선요구 사항 역시 기숙사 남녀 영역의 실질적인 개선을 위해 계획에 반영해야 하는 중요항목으로 판단된다.

6. 결론

대학생활의 어려움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을 출신 지역 별로 분석하고, 임시주거 유형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조사하며, 현재 거주하는 임시주거 선택의 이유와 계속 거주 또는 이주 희망 이유를 분석한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임시주거 계획에서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고려해야 하는 요인들의 탐색을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을 진행하여 대학 기숙사와 원룸 계획을 위한 프로그램의 방향성과, 임시주거 거주학생들의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본 연구는 임시주거의 물리적 개선을 위한 고려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다른 학생들과의 교류가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있도록 하는 건축적 배려를 통해 커뮤니티에 소속감을 느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사회적 지원을 고려해야 하고, 안전하고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한 배치 및 평면계획을 하여 심리적 지원을 제공하는 배려 역시 필요하다. 둘째, 임시주거의 물리적 개선은 임시주거에서 거주만족도가 높은 항목과 물리적 개선요구 순서와 정도를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성별에 따른 요구의 차이 역시 반영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H 대학 건축학과 재학생들을 분석의 단위로 하여 연구의 결과가 일반화의 한계를 갖고 있으나, 임시주거 거주 학생들의 출신 지역, 성별, 거주유형에 따라 대학생활에 대한 만족도와 거주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조사하여 임시주거 계획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References

1. An, Jin-o and Je, Hae-seong, A case study on the common space in the dormitory buildings on campus. *Journal of the KIEAE*, 7(4), 2007.
2. Hur, Jinseon and Yang, Sehwa, Perceptions of privacy and territoriality and residential satisfaction in dormitory rooms. *Journal of the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Planning & Design*, 18(8), 2002.
3. Kim, Mi-Hee and Oh, Ji-Young, University students' housing satisfaction of the university dormitory. *Journal of the Korean Housing Association*, 19(6), 2008.
4. Kim, Won-Pil, Effects of physical living environment on the social interaction and perceived sense of community among students in university dormitory.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Educational Facilities*, 22(5), 2015.
5. Lee, Oi Sun, Hong, Min-Joo & Gu, Hye-Ja, The correlation between school-life stress, depression and college adjustment residing in the dormitory. *Journal of the Korea Academic-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7(9), 2016.
6. Lee, Sun-Mi, Relationship between stress symptoms and health promoting behaviors for university students by the type of residence. *Journal of the Korea Academic-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7(9), 2016.
7. Park, Hang-Ja et. al., A study on cause-and-effect analysis between the environmental factors of residential area at the university dormitory and the user satisfaction. *Korean Institute of Interior Design Journal*, 17(5), 2008.
8. Park, Hang-Ja et. al., A study on improvement of residential environment for indoor space of university dormitory through the evaluation of user satisfaction. *Journal of the Korean Housing Association*, 18(2), 2007.
9. Park, Ui-Su and Cho, Young-Chae, The effect of social supports, psychological behaviors, and stress on the depression symptoms of colleg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c-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8(6), 2017.
10. Song, Byung-Ha and Roh, Ji-Woong, A study on satisfaction and behavior in a residence hall. *Journal of the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Planning & Design*, 20(1), 2004.
11. Yang, Sung-Yong et. al., A study on proper ratio calculation of university dormitory. *Journal of the Regional Association of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17(1),

2015.

12. Yeom, Dae-Bong and Park, Sung-Jin, A study on the effects of locational characteristics of university dormitories on resident students' dwelling satisfaction. Journal of the Regional Association of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16(1), 2014.
13. Zhang, He Quan and Lee, Sung Pil, A study on finding uncomfortable factors in dormitory. Korea Science & Art Forum, 26, 2016.

접수 2020. 2. 3
1차 심사완료 2020. 2. 10
2차 심사완료 2020. 2. 18
게재확정 2020. 2. 25